

민주 정청래 대표 ‘호남 챙기기’… 호남발전특위도 설치

취임 직후 전남에서 현장최고위
수해 현장 찾아 복구 활동 펼쳐
군공항 이전 최대협력 약속도
“호남의 민주화 헌신에 보답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선출 이후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대선 기간 호남지역에서 ‘한달 살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정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뒤 곧바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로 전남을 선택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8일 민주당 지도부는 무안에서 정청래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정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무안 현장 최고위원회에 앞서 오전 9시께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한다.

이후 무안 남악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최고위원회의가 종료되면 무안의 수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첫 행보로, 지난 3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주 노안면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을 지명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후보시절 전남지역 기자회견에서 밝힌 “당 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위에서 전남 공공의대 문제를 전광석화처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도 최대한 협력하겠다” 약속을 지킨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

앞서 정 대표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지난 3일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것도 정 대표의 ‘호남 챙기기’ 의지를 보여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어떤 기초단체장이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는데 국가는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 줬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

다. (호남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며 “호남 발전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선 티(표시) 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호남 일정 전날인 7일에는 경남 김해를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삼석 의원

호남 배려…정청래 대표 “호남정신 당 운영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호남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15일자 3면)과 관련해 민주당이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당무회에서 인준돼 곧바로 최고위원 역할을 맡게된다.

정 대표는 “호남의 역사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정신이 당 운영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공직 출마 경합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온라인 공개 오디션,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며, 최종 후보자 4명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



서삼석 의원

100%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된 서삼석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서 “민주당과 호남의 소통 창구로 기회를 주신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 대표는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며,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러한 호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대선 기간과 당 대표 경선 기간 동안 정 대표가 말과 행동으로 호남에서 직접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지도부는 저를 지명해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과 당원들께 누가 되지 않고 국민들께 보탬이 되도록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숙고

조국 전 대표 포함 최대 관심…국민통합 등 고려해 결정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 왔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뜨거운 감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

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나온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식이 되기보다는 정치활동을 재개

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할 것이라 시작이 많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보은 사면’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실무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여야 정치인의 ‘예비 명단’을 짜 놓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열리는 만큼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금명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다룰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부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기 마련인 만큼, 심사 전에 정치인 사면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